

13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573.64 (-1.18)	722.80 (-6.69)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570 (+0.020)	1455.10 (+4.10)

# metro® 경제



여야  
탄핵정국에  
민생은 뒷전  
06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 식음료 모르는 K-라면 인기 2월 수출액 1750억 '신기록'

연평균 수출액 증가율 20% 육박  
작년 농식품 수출 1위 품목 차지  
업계, 해외 생산·유통 확대 박차  
美 시장 트럼프 관세 위협 변수



농심 신라면 차량이 미국 시내를 누비고 있다. /농심

라면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지난 2월 라면 수출액이 처음으로 월간 1억2000만 달러(약 1749억원)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업계는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확대는 물론,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2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라면 수출액은 1억2115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9290만 달러) 대비 30.4% 증가한 수치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올해 1~2월 누적 수출액은 2억2864만 달러로 전년 동기(1억7865만 달러) 대비 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출량도 5만7190t으로 30.2% 늘어나며 글로벌 시장에서 K-라면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졌다.

라면은 지난해 한국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K-콘텐츠의 인기와 힘입어 K-라면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으며, 간편식을 선호하는 트렌드와 맞물려 수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출액 증가율이 20%에 이를 정도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주요 라면업체들은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생산 및 유통망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심은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이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농심 유럽' 법인을 설립했다. 또한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녹산에 수출 전용 공장을 건설 중이며, 2025년 하반기 본격 가동 시 연간 27억 개의 제품을 해외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수출이 본격화된 2016년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출 비중이 2023년 68%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77%로 증가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도 20%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12%와 비교해서 크게 성장

한 모양새다. 농심의 영업이익률은 전년(6.2%) 대비 하락한 4.7%로 집계됐다. 다만 매출 측면에서는 농심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3조 4387억원을 기록하며 굳건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삼양식품은 같은 기간 1조 7300억원을 기록했다.

삼양식품은 오는 6월 밀양 2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시장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오뚜기는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영문 상호를 'OTT OGI'에서 'OTOKI'로 변경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 제품인 '진라면'의 글로벌 모델로 방탄소년단(BTS) 진을 발탁해 해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소송·투기자본공격 우려에도 상법 개정안, 野 주도 국회 통과

경제계, 가결 소식에 “깊은 유감”  
“경영전념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

각종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 공격 가능성 확대, 기업이 정신 위축 등을 이유로 경제계가 강력 반대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인 이사의 총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가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3일 국회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총 투표수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앞서 본회의 법안 반대 토론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너무 당연한 원칙을 선언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경제계는 이날 상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소식에 일제히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관련 논평에서 “이사 총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면서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그러면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해 기업 본연의 역할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에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까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해외 주요국도 이사 총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면서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되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한경협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사 총실의무 확대는 우리 회사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 헌법 기본원칙에 배치될 소지도 크다”면서 “경제계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험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6면에 계속>

/김승호·허정운·박태홍 기자 bada@

## “통화정책, 경기 회복에 초점… 가계빚·집값 유의”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  
美中 갈등에 환율 변동성 확대

한국은행이 당분간 물가 안정 속에 낮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춘 통화정책을 운영할 전망이다. 한은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으로 달러화 대비 원화 등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4면>

한은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통화신용정책의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고, 올해 2월 기준금리를 0.25%p 내렸다. 당시 3.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연 2.75%다.

한은이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가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2%에서 2월 2.0%로 떨어졌다. 목표치(2%)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한은은 앞으로 경기회복에 무게를 두고 금리인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였던 1.9%보다 0.4%p 낮은 1.5%로 전망했다. 내수(소비·투자)회복이 더뎠고, 수출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

이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발 관세정책까지 더해지면 수출은 크게 둔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리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한은은 금리가 3.2% 이하로 떨어지면 가계부채가 늘고 집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성한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금리인하 기초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여타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외환시장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경계감이 여전히 강한 만큼 관련 불확실성 요인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

### 메트로 한줄뉴스



▲ 최상목 “트럼프 관세에 캐·맥 전략 안돼”… 보복 선택지 배제  
▲ 권성동 “명태균특검법·방통위법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사진 뉴시스

▲ 현재, 검사 탄핵 기각하면서도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 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환영… 野 탄핵 남발에 경중”

▲ 민주 “명태균·김영선도 구속취소 청구… 범죄자들 다 풀어줄 것인가”  
▲ 이재명, 3선 의원들과 간담회… “내부 단결·통합 모습 보여야”